

시청에서 오는 세금이나 보험료 지불에 대하여

주민세를 내지않으면 비자가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국적인에게는, 일본인과 동일하게 시청에서 주민세나 건강보험료의 납부서가 옵니다. 납부서가 오면 기한까지 돈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 (빨리 돈을 내라는 통지) 이 날라오고, 지연금 (페널티)가 가산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살려면

납세는 의무 이므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또, 외국국적인이 입국관리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주민세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전에는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수입에 대한 증명은, 회사가 발행하는 원천징수표 (세금을 낸 것을 증명하는 것) 였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위조된 것도 많고, 실제로는 수입도 적고, 납세도 하지않고 있었던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입에 관한 증명으로서, 주민세 과세증명과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납세는 체납 (세금을 안내고 있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체납을 하거나 납세를 증명하는 서류를 못 받거나 하면, 비자심사에 크게 영향을 미쳐,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일본인 배우자등의 재류자격인증증명서 교부신청에서는 납세하지 않는 경우, 일본에서의 생활을 유지할 만큼의 경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교부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본은 「국민모두보험」 이라고 해서, 전원이 보험에 들어, 서로 돕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에 들어있으면 병원에 갔을 때, 의료비는 실비의 30%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가 비싸다」 든지, 「병원에 안가니까」 든지 「나중에 내면되지」 라고 생각하고 납세기한이 지나버리면, 공적서비스 그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확정신고를 해서, 기한내에 납세하도록 명심합시다.

시청에서 오는 통지나 납부서를 읽지를 못하거나, 내용을 모를 때는, 빨리 시청이나 FICEC 에 상담합시다.

도도후켄의 최저임금 (9 월현재) 을 알고 있습니까?

사이타마 871, 동경 958, 가나가와 956, 오오사카 909, 아이치 871, 치바 868, 교토 856, 효고 844, 시즈오카 832, 미에 820, 히로시마 818, 시가 813, 홋카이도 810, 도치기/기후 800, 이바라기 796, 도야마·나가노 795, 야마나시 784, 후쿠오카 789, 나라 786, 군마 783, 이시카와·오카야마 781, 니가타·후쿠이 778, 와카야마야마구치 777, 미야기 772, 가가와 766, 후쿠시마 748, 시마네·쿠시마 740, 야마가타·에히메 739, 아모모리·이와테 아키타·돗토리 738, 고오치·사가·나가사키·구마모토·오이타·미야자키·가고시마·오키나와 737 (단위·엔) .

정부는 최저임금 (시급) 을 매년 3%인상해서 장래적으로는 전국평균을 1000 엔으로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일본어가 불충분한 경우, 임금이 기준이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일본어가 필요합니다. 일본어를 쓰고 읽을 수 있도록 공부합시다.



후지미시국제교류 포럼 「외국국적인과 얘기하자」

일시
9/15(토)11:20~15:30

장소
후지미시민문화회관
키라리☆후지미



후지미시에서는 매년, 외국국적시민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포럼 「세계의 문」 을 개최 하고 있습니다. FICEC 는 외국국적인과 일본에서의 생활이나 문화의 차이등에 대해 서로얘기하는 코너를 담당합니다. 여러분 꼭 놀러오세요.

기타, 기모노시착·플라워어랜지먼트·일본북·밤브댄스·태극권·홀라댄스·가스펠등 재미있는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를 공부중인 여러분에게 『선배로부터 어드바이스』 한국의 K 씨의 경우

25 년전에 결혼해서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어가 는 것은 , 15 년정도 일을 한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레지일을 하고나서 동료들과 친해지고, 회화가 즐거워졌습니다.

직장에는 친절한 사람도 쌀쌀한 사람도 있어서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고생하면서 일본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본인에 대해서도 일본인과의 대응도, 일을 통해 생활속에서 배웠습니다. 일본어습득은 사람과 이야기하는게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의 학교간담회나 면담에는, 애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 갔습니다. 고교입시때는 상담할 사람이 없었으나 , FICEC 를 일찍 알았더라면 상담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FICEC 일본어교실을 다니게되어 여러사람과도 대화가 되어 마음도 위로받고 , 마음이 놓입니다. 자녀들과 나보고 일본어가 유창해졌다고 하니 기쁩니다.